

# 실직·폐업 등 '新 빈곤층' 긴급복지지원 신청 급증

### 광주, 올 449건... 지난해 보다 75% 늘어

광주시 북구 운암동 S대학 인근에서 분식집을 하던 이모(45)씨는 지난 달 20일 북구로부터 긴급 생계비 12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는 7년 전부터 분식집을 운영해왔으나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매출 100만원에 이르는 월세와 난방비, 재료비 등 운영비마저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지난해 12월 결국 폐업신청을 했다.

김씨는 "가게 보증금 3천만원은 대출금과 부채를 갚느라 한 푼도 남지 않았다"며 "당장 가족들이 먹고 살 돈마저 없었으나 구청의 도움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깊어가는 경기 불황속에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이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복지 지원을 신청하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15일 광주지역 5개 구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31일 현재 긴급복지 지원 신청건수는 449건(지원금 2억7

천42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6건(2억2천405만원)보다 75.4%(건수 기준) 증가했다.

구별로는 ▲동구 108건(전년동기 42건) ▲서구 54건(35건) ▲남구 157건(105건) ▲북구 79건(53건) ▲광산구 51건(21건) 등이다.

올 한 해 예산은 51억2천199만원으로 지난해 35억986만원 보다 45.9%(16억1천213만원) 늘었다. 남아 있는 예산은 ▲동구 7억6천600만원 ▲서구 8억3천122만원 ▲남구 10억709만원 ▲북구 13억3천578만원 ▲광산구 4억4천900만원 등이다.

신청자는 대개 이혼이나 가장의 실직, 휴·폐업 등으로 갑작스레 위기에 직면한 '신(新) 빈곤층'들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갑작스런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 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해왔다.

올 들어 신청자가 급증한 이유는 경

기침체로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각종 질병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지원대상 요건도 완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올해부터 신청자의 부동산 등 재산기준이 1억3천500만원으로 지난해 9천500만원 보다 늘었고, 금융재산도 지난해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됐다. 특히 휴·폐업으로 인해 일시적 생활고에 시달리는 영세 자영업자들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휴·폐업을 신고한 지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연간 소득 2천400만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의료지원은 최대 300만원 이내, 생계지원은 4인 가구 기준 최고 132만5천원까지 지원된다. 북구 관계자는 "최근 긴급 복지지원 제도에 대해 문의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경우 고민만 할 게 아니라 구청 등에 자문을 구해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종희기자 golee@kwangju.co.kr



# 점검 3일만에 고장... 케이블카 사고는 '人災'

### 해남경찰 "소켓·줄 잇는 낡은 낱뿔 떨어져 발생"

해남군 두륜산 케이블카 정지 사고(본보 16일자 7면)는 형식적인 점검이 부른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해남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케이블카(탑승인원 50명)에 부착된 철제 소켓과 이를 이어주는 지름 2.2cm의 낱 줄의 접합부분에 낱뿔이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했다. 낱 줄은 케이블카를 상·하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

추락방지용 본 줄(지름 5.8cm)에 매달린 케이블카는 소켓에 연결된 2개의 낱 줄에 의해 상·하로 이동하며, 소켓과 낱 줄이 따로 움직일 경우 줄이 엉키면서 운행 정지 등 고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 연결부위(소켓과 낱 줄)는 낱뿔으로 접합돼 있다.

그러나 2개의 낱 줄 중 1개의 낱 줄과 접합된 소켓의 낱뿔이 떨어져 나갔고 이로 인해 줄이 엉키면서 케이



두륜산 케이블카에 사용된 낱 줄과 철제 소켓.

블카가 멈췄다. 문제의 낱 줄은 관리업체인 대구의 K업체로부터 분기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받았으며 지난해 12월에도 한 차례 점검을 받았었다.

특히 교통안전공단은 사고 발생 3일 전인 지난 11~12일 케이블카 운반기구와 구동·제동장치, 전기선로, 밧줄 등 38개 세부항목별 점검을 했지만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정기·수시점검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것

은 그동안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날 연결 부위의 낱뿔이 떨어져 나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낱뿔 성분이 정품인지 여부를 정확히 가려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 멜론 종자 밀수범 검거 여수세관

여수세관은 16일 수천만원대의 일본산 멜론 종자 등 10여종의 종자를 밀수한 정모(47)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검아 조사 중이다. 세관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41회에 걸쳐 국제특급우편 또는 휴대 반입 등의 방법으로 8천300만원 상당의 일본산 멜론 종자 등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춥다 추워!"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3.5도로 푹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 16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를 걷는 여성들의 모습에서 '추위'가 느껴진다. 기상청은 17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감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가로수 훼손 신고하면 5만원 준다

#### 광주시, 3월 시행

오는 3월부터 광주시에 가로수 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은행 등 열매를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된다.

또 가로수 무단 훼손을 관찰 구청에 신고하면 최고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훼손자는 피해액 전액을 변상해야 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공포하고 오는 3월부터 시

행할 방침이다.

개정 조례안은 가로수 물주기나 병해충 발생 신고, 피해 장애물 제거, 피해 가로수 신고 등에 참여하면 가로수 열매인 은행 등을 무상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소 간판을 가리키는 이유 등으로 가로수를 훼손하면 피해액을 전액 변상해야 한다. 반면, 최초 신고자에게는 피해액에 따라 1만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17분 해질 18시 17분 달돋이 01시 28분 달질 11시 16분

**출지만 화창해요!**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 한때 구름이 조금 끼는 곳도 있겠다.

광주	구름 조금	-6/4℃
목포	구름 조금	-4/3℃
여수	맑음	-3/5℃
완도	흐린 뒤 맑음	-3/5℃
구례	구름 조금	-6/4℃
해남	흐린 뒤 맑음	-5/5℃
장흥	흐린 뒤 맑음	-5/5℃
고흥	맑음	-4/6℃
순천	구름 조금	-4/5℃
영광	맑은 뒤 흐림	-6/2℃
진도	구름 많음	-4/5℃
전주	구름 조금	-8/2℃
남원	구름 조금	-8/4℃
옥산도	구름 조금	-2/4℃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풍	1.0~2.0m	목포 07:28	12:38
연안	북~북동풍	1.0~2.5m	19:03	--:--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풍	1.0~2.0m	여수 01:47	07:52
연안	북~북동풍	1.0~2.0m	13:09	19:36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8(수)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날씨						
최저/최고	-3/8	3/8	0/5	-4/7	1/8	1/7

# 강풍 피해 50억원 넘어서

### 전남, 갈수록 '눈덩이'

지난 13일 불어닥친 강풍과 풍랑으로 전남 서남해안 지역 피해액이 50억원을 넘어서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해상 피해의 경우 조사 여건이 좋지 않아 정확한 집계는 늦어지고 있는 만큼 피해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강풍과 풍랑 때문에 해남·무안·완도·진도·신안군 등 5개 시·군에서 모두 54억5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김 양식장이 해남과 진도·신안지역 383 어가에서 50억7천만원(1만6천639척)의 피해를 입어 피해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역 양식장은 완도·진도지역 29

어가에서 1천178줄(2억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완도와 진도 9 어가의 다시마와 톳·굴 양식장에서 6천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또 진도군의 육상전복종묘배양장 시설 1곳도 파손됐으며, 해남과 진도의 어선 12척도 전파되거나 반파돼 5천200만원의 피해가 났다.

해남과 진도의 비닐하우스도 30개 동(1.4ha)이 무너져 6천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무안과 진도에서는 축사 3개 동이 파손되고 해남 문내면에서 주택 1채가 반파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해상 여건상 정확한 피해조사가 지연되고 있어 앞으로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조사와 함께 복구작업을 서둘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전남 방범용 CCTV 124대 추가 설치

#### 5년간 범인 259명 검거

방범용 CCTV(폐쇄회로)TV가 전남지역 농산물 절도범 등 범인 검거에 효과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올해 124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범퇴 취약지역

등 452개소에 총사범비 54억원을 투자해 884대의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방범용 CCTV를 통해 그동안 총 259명의 범인을 검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교통사고 뺑소니 184건을 비롯한 농산물 절도 사범 34건, 형사사범 41건 등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승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26 / 010-722-0100

11215300-9999